

요소로 나타났다.

- 9) 영도의 워터프런트 야간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기 싫은 요소」는 부조화스러운 불빛과 어두움 등 빛의 양과 관련된 요소와 높은 아파트, 밀집해 있는 주택, 노후된 건물 등과 같이 전체경관의 조화를 깨는 요소 그리고 횃집과 여관 등과 같은 상업적인 조명이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 10) 영도전체 워터프런트 야간경관계획은 수변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조명 belt를 조성하여 통합적이고 완결된 야간경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조망점 개발과 전체 조망점을 이어주는 영도순환 조망 route개발이 필요하다.
- 11) 경관지역별로 워터프런트 야간경관의 특성을 살려 A지역은 「도시의 게이트를 선명하게 하는 빛」, B지역은 「계절감을 연출하는 빛」, C지역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빛」, D지역은 「수목을 비추는 빛」, E지역은 「랜드마크 빛」, F지역은 「사람들을 모으는 빛」, G지역은 「조용함과 편안함을 연출하는 빛」, H지역은 「방향성 있는 빛」을 주제로 야간경관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워터프런트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로서 영도를 대상으로 하여 해안에 위치한 워터프런트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워터프런트 야간경관계획방안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영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워터프런트 야간경관계획을 세우는 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바다에서 바라보는 부산시 전체워터프런트 야간경관평가와 영도를 포함한 부산시 전체워터프런트의 야간경관 master plan 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4. 워터프런트에 입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성에 관한 연구

해양건축공학과 조형장
지도교수 이명권

해양도시인 부산은 그 지리적 특성상 도시의 평면적 공간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이 가지는 잠재적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토지 활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간의 연안역 공간의 이용은 해상수송, 항만, 물류기지, 어업등의 장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워터프런트의 적극적 개발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도시의 건설과 바

다가 가진 쾌적성을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그간 뚜렷한 계획적 지침 또는 Design guideline 없이 단지 사업성 또는 경제성 위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근간에 이르러서 체계적인 연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건축물 또는 워터프런트 개발계획에 있어 특히 워터프런트에 입지하는 주거단지 계획에 역점을 두어 사용자적 측면에서 기존 워터프런트 주거단지의 쾌적성을 조사,분석 하였다.

또한 동일 주거단지 내에서도 각층별, 방위별, 위치별 쾌적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가장 선호하는 층, 방위, 위치 등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워터프런트 주거단지 계획의 모델설정에 필요한 Design guideline 과 디자인요소, 원칙 등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향에 대한 쾌적성

- 만족도의 순서는 남향, 남동향, 동향, 남서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향, 남동향의 선호 경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조, 채광 및 조망이 향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거주지에서 일조, 채광 및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불만족도는 각각 59.7%, 16.6%로 나타났다. 특히 향에 대한 불만족 이유 중 일조, 채광은 좋으나 전망이 나빠서 라는 이유가 6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워터프런트 주거단지 거주자의 경우 전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향과 조망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이상이 향보다는 외부로의 조망이 좋아야 한다고 응답하여 워터프런트 주거단지에 있어서는 조망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거주층수(층별 Zone)에 대한 쾌적성

- 만족도의 순은 고층, 초고층, 중층, 저층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저층의 만족도(47.6%)에 비해 고층의 만족도(80.9%)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3) 각 층별 Zone에서의 경관(외부로의 조망)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안벽형 워터프런트, 호안형 워터프런트 및 하천형 워터프런트의 3 Type의 경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고층부 경관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저층부 경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층부 경관 및 초고층부 경관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선호도 비율로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선호도-1의 비율에 있어 초고층부 경관이 중층부 경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관 선호도의 순서는 고층부 경관, 초고층부 경관, 중층부 경관, 저층부 경관의 순서로 나타났다.

4) 해양의 환경 특성에 의한 쾌적성

- 해염입자에 의한 피해정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층별 Zone보다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한 해무의 발생빈도 등에 더 크게 좌우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 태풍(2003년 매미)에 의한 피해정도는 각 층별 Zone에서 공통적으로 정전사태, 빗물누수, 유리창파손 피해가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층부(1~5층)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 적은 반면 빗물누수에 대한 피해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워터프론트 주거단지 조성 시 거주자 측면에서 바라본 계획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종합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려
- ② 해풍에 의한 염분기, 습기 등의 피해 최소화
- ③ 해안경관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단지 배치계획
- ④ 답답한 — 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배치형태 연구
- ⑤ 충분한 인동거리 확보, 엇갈린 배치 등에 의한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⑥ 근린생활권 소음, 교통 소음원 등으로부터의 보호
- ⑦ 입주자 위주의 원활한 교통로, 진입로 계획 (행락객과의 교통동선 분리)

5)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최근 부산 연안의 주요경관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각각 서로 다른 향과 조망축을 형성하는 3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외적조건이 비슷한 대상지의 분류와 선정 및 조사항목과 체계의 미비로 인해 보편성에 다소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계기로 향후 워터프론트에 입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앞으로 설문조사 항목과 체계, 조사대상지의 분류와 선택에 관한 면밀한 예비조사와 사전계획 등 설문에 관한 정도 향상방안과 사례조사의 축적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워터프론트에 입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성에 관한 연구의 시초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며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각 단지별, 계절별 또는 내륙의 아파트 단지 거주자 및 건축 관련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등으로 나누어 보다 광범위한 사례조사 및 의식 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해양주거단지 계획의 모델 설정을 위한 Design guideline과 Design요소, 원칙 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